

포커스

우리나라 기술 수출·입 광학 등 IT분야에 집중

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지난 10월 25일 '2007년도 품목별 수출·입 현황' 보고서를 발표했다. 보고서에 따르면, 2007년도 기술무역 실적 중 기술료 규모 100만달러 이상인 품목을 분석한 결과, 상위 5대 품목이 전체 기술도입액의 69.6%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기술수출은 집중도가 더욱 높아 수출액의 79.1%가 상위 5개 품목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.

기술도입액을 품목별로 보면, CDMA가 전체 기술료의 21.4%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, 소프트웨어(15.6%), PC관련기술(13.9%), LCD 등 광학기술(11.8%), 통신기술(6.9%)의 순으로 나타났다. 특히 1위부터 5위까지 기술이 모두 IT기술로, 이들 5개 품목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%에 육박했다.

이들 품목의 기술도입액 비중이 높은 것은 휴대폰, 모니터, 컴퓨터 등 국내 기업들이 주력하고 있는 IT제품 관련 원천기술 도입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.

기술수출은 LCD 등 모니터 관련 기술이 전체의 27.0%를 차지해 1위를 기록했고, 자동차(21.5%), 핸드폰(12.1%), 광드라이브디스크(ODD) 관련 기술(11.6%), PC(6.9%)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. 기술수출 상위 5개 품목 중 자동차를 제외한 4개 품목이 IT관련 기술로, 전체의 57.6%를 차지했다.

기술수출의 경우 국내 모기업과 해외에 진출한 현지 자회사 간 기술거래가 주를 이뤘다. 모니터(LCD) 기술수출액 중 99.7%가 국내 모기업과 현지 법인 간 거래였으며, 핸드폰 관련 기술의 82.2%, ODD 관련 기술의 84.3%, PC 관련 기술의 75.3%가 해외의 자회사로 수출된 것으로 나타났다.

한편, 특허권 등 사용료 수취실적이 있는 508개 기업을 대상으로 '기술무역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'를 실시한 결과, 기업

들은 도입기술의 가치평가와 기술구매자 탐색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.

기술도입상의 애로는 '도입기술에 대한 가치평가 및 계약조건 설정·협상'(25.0%)이 가장 높았고, '기술도입의 타당성 평가'(24.0%)가 뒤를 이었다. 기술수출은 '구매자 탐색과 발굴'(38.4%)이 가장 높았고, '계약조건 설정 및 협상'(21.4%), '수출기술에 대한 가치평가'(14.8%) 순으로 나타났다. 기술무역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절반 이상이 '기술수출입 세제 및 자금지원'을 가장 시급한 대책으로 꼽았다.

기업 전체 수출실적에서 기술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기업의 42.2%가 1%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,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수출 비중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 대기업의 62.9%가 기술수출 비중이 1% 미만에 불과했으나 중소기업은 10% 이상인 경우가 36.8%에 달했다.

반면, 기업 전체 R&D에서 기술도입 비중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. 응답기업의 69.5%는 연구개발비 중 기술도입액의 비중이 5% 미만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.

2007년 품목별 기술 수출·입 현황 (단위:%)

